

북

이념 격랑 속 새로운 '우익청년 탄생기'

Books

구월의 이틀
장정일 지음



보통은 살아온 환경에 따라 '좌파'나 '우파'로 갈리지만 오락가락하며 가치관 없이 세상과 맞서는 시기가 청춘이리라. 그래서 청춘은 매번 곤혹스럽다. 특히 마마보이가 넘쳐나고 사상 자체를 허락할 뇌와 가슴이 빙약한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다.

'너에게 나를 보낸다' '내게 거짓말을 해봐' 등 기존의 가치체계와 소설문법에 저항하는 실험적 작품을 썼던 작가 장정일(47)씨가 10년 만에 낸 장편소설 '구월의 이틀'은 가치와 도덕, 권위가 혼들리는 시대, 청춘의 이상을 펼치기도 전에 영리한 삶을 요구받는 우리 시대 젊은이들의 고민과 혼란을 적나라하게 그렸다. 젊은 날의 초상을 다했다는 점에서 이번 소설은 그의 초기작 '아답이 눈뜰 때'와 연속선상에 있다고 하겠다.

류시화 시인의 시에서 제목을 따온 소설은 참여정부가 막 출범한 2003년을 배경으로 각각 광주와 부산에서 자라다 대학 입학과 함께 서울로 온 금과 은, 두 청년의 성장통을 다했었다.

시민운동을 하다 청와대 보좌관이 된 아버지 밑에서 자란 금과 은은 대학 입학과 함께 서울로 온 금과 은, 두 청년의 성장통을 다했었다.

꿈을 안고 서울로 진학한 금과 은이 맞닥들인 것은 대학생생활에 대한 실망뿐. 연상녀와의 섹스에 탐닉하던 금은 아버지의 자살을 계기로 현실에 환멸을 느낀 후 정치가의 오랜 꿈을 버리고 고향 광주에서

광주·부산 출생... 배경 다른 두 청춘

이데올로기·성 정체성 좇는 이야기



문학을 하기로 결심한다.
반면 고교생 때부터 문학에 뜻을 뒀던 은은 오히려

려 문학의 무력함에 실망하고, 동성애와 여성적 성향을 극복하며 정치가의 애심을 키우며 우익청년으로 성장한다.

작가 장정일은 작가 후기를 통해 "이 소설을 쓰면서 의식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우익청년 탄생기'를 써보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우익청년의 일대기는 다른 문학작품이 많이 나온 나라에서는 건전한 상식과 철학을 토대로 한 우파가 사회를 지향하는 기둥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1980~1990년대 한국 문학이 좌파와 일색의 소설을 쏟아낸 까닭과 아직 우리 문학에 제대로 된 우의 소설이 탄생하지 못한 이유가, 과거 우리나라의 우파가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도덕했기 때문이라고 꼽는다.

그래서 작가는 은이라는 인물을 우익의 새로운 모델로서 만들고자 공을 들인다. 소설 속 은은 저세에 능하고 이중적이지만, 사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균형감과 자기계발 능력을 지녔다.

작가는 "은은 우익과 뉴라이트의 영향 아래 있지만, 그들과의 사상투쟁을 통해 자긍심에 찬, 깊고 순수한 우익으로 단련되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념의 대결이 관계의 대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2004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건을 최종 판결하는 날,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국에 치달은 현장에서 서로를 발견한 금과 은은 잠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내려두고 친구로 만난다.

결말에 나타나는 이 두 친구의 진한 우정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반드시 관계의 대립으로 종결되지 않는 않음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작가는 우리 시대 청춘으로 상징되는 금과 은을 결국 더 나은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사회의 동행자로 삼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랜덤ハウス·1만3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개미-지구의 작은 지배자=개미 전문가 로랑 가켈라와 과학 전문기자 엘리자베스 고르동이 신비하고 매혹적인 개미의 세계로 안내한다. 저자들은 개미만큼 정밀하고 구조적인 사회를 갖는 동물을 극히 드물다고 말한다. 개미가 이동한 경로를 통한 수학 문제 해결, 개미의 집단 지능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로봇 등 개미의 연구를 통해 얻은 많은

연구 성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작은책방·1만3천원〉



▲비발디의 척=작가 겸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는 바버라 퀸이 쓴 18세기 베니스를 배경으로 한 성장소설이다. 고아원에 버려진 후 안토니오 비발디의 가르침을 받는 바이올린 연주자 안나 마리아가 자신의 뿌리를 찾는 과정과 음악에 대한 열정 등이 그려진다. 예술가 비발디가 창조해낸 예술세계를 담아낸 아름다운 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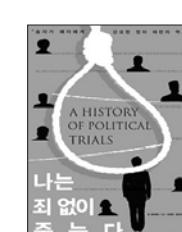
〈이룸·1만2천700원〉



▲한국의 초상화=초상화 연구의 권위자 조선미 교수가 엔션한 74점의 초상화 걸작을 통해 한국 초상화의 예술 세계로 안내한다. 허목의 초상, 윤도서의 자화상, 조영복 초상 등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생생한 진영(眞影)과 함께 재현하며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역사·문화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했다. 〈돌베개·4만5천원〉



▲종이로 살피는 삶의 이야기=화장지, 종이컵, 펠터, 전단지, 책, 서류, 스티커, 상표, 가격표, 영수증, 봉지... 현재 전 세계가 소비하는 종이는 하루 100만 톤에 이른다. 40년 전에 비해 4배나 늘었다. 각종 고지서 종이행주까지 종이가 없이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을 정도다. 숲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과 연구를 해온 맨디 하기스가 종이 소비가 늘면서 치러야 하는 대가를 냉철하게 짚었다. 〈상상의 숲·1만4천원〉



▲나는 죄 없이 죽는다=영국 작가 겸 기자인 존 래프랜드의 책 원제 '정치 재판의 역사(A History of Political Trials)'를 번역했다. 국가원수 재판(월스1세, 루이16세, 에리히 호네케, 사담 후세인 등)을 살펴보면서 모든 국가원수 재판이 사실은 각각 독단과 불의를 기록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위선으로 점철되어 있어 사실상 정치 재판은 다른 수단으로 의한 전쟁의 연속이라고 주장한다. 〈책보세·2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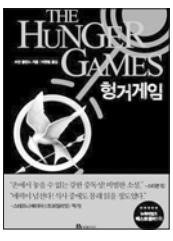
▲YO. 당신의 짚음지수는 얼마입니까?=언제 까지나 나이를 먹지 않고 영원히 젊게 살고 싶은 바람을 얘기하고 있다. 저자는 나이를 먹는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라며 10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젊음을 물론 성공까지 거머쥘 수 있다고 말한다. 젊음지수 YQ(Youth Quotient)를 측정하는 간단한 테스트도 수록했다. 〈미래와경영·1만5천원〉



▲박물관에 살다=한국박물관 100년의 사람들=1909년 고종의 제실박물관 개관 이후 올해로 100년을 맞은 한국박물관의 역사를 되짚었다. 한국전쟁 당시 국보급 유물을 지켜내기 위해 애썼던 고(故) 김재원 초대 국립박물관장을 시작으로 진홍섭·윤무병·장주근 등 원로 10명의 인터뷰를 실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박물관 관련한 감춰진 이야기와 뒷얘기를 들려준다. 〈동아일보사·1만5천원〉

10대 소년·소녀 24명

죽고 죽이는 '잔혹 게임'



'언더랜드 연대기' 시리즈 등 베스트셀러를 내온 작가 수잔 콜린스의 판타지 소설 '헝거 게임'이 출간됐다. 폐허가 된 북미대륙에 건설된 독재국가 '핀Emily'에서는 '헝거 게임'이라는 잔혹한 게임이 진행된다. 해마다 12개 구역에서 두 명씩의 10대 소년, 소녀를 추첨한 후 한 명만 살아남을 때까지 서로 죽이게 하는 게임이다. 게임의 모든 과정은 리얼리티 TV 쇼로 24시간 생중계된다.

미국에서는 현재 2부 '개칭 파이어'까지 나왔으며 내년에 3부 완결편이 출간될 예정이다. 〈북풀리오·1만3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상의 향수, 천상의 향기

셀리아 리틀턴 지음



이라크에서 발견된 기원전 3천50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증류기는 꽃향기를 추출하기 위한 도구였다. 인간은 이 토록 향기에 집착하는 것일까?

영국인 예술가이자 언론인 셀리아 리틀턴의 신간 '지상의 향수 천상의 향기'는 인류가 향기를 만들어 내는 역사와 과정을 담고 있다.

저자는 고고학자인 자신의 어머니와 세계를 여행하면서 매혹적인 향의 역사를 주적한다.

세계 각국의 향료 시장과 향수 제조 도시를 소개

세계 각국 매혹적인 향의 역사 추적

셀리아 리틀턴 지음

하고 유향과 몰약 등에서 피어오르는 냄새의 비밀을 설명한다.

과거 인류는 유향과 몰약에 소독과 세척 성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18세기에도 해도 불결한 냄새를 없애고, 집안의 벌레를 죽이려고 향을 사용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와 의식뿐 아니라 성적인 매력을 높이려고 향을 썼다.

또 나라마다 꽃 등에서 효과적으로 향을 채취하기 위해 다양한 향수 가공법을 개발해 냈다.

향료의 섭 스리랑카는 네트메가 많아지고, 독일과 영국은 네트메가 무역권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기도 한다. 17세기 유럽에서 네트메는 가장 탑나는 사치품이었다. 나쁜 향을 얻기 위해 대부분은 유럽인들 때문에 네트메는 금과 맞먹는 귀중

품이 됐다.

또 신비로운 향으로 알려진 용연향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다. 용연향은 병에 걸린 고래의 배에서 발견되지만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 지속성이 뛰어나 금세 사라지는 다른 향들이 오래 지속하도록 돋는다.

하지만 너무 귀하고, 값도 비싸기 때문에 극소수의 사람만이 용연향을 제조하고 사용하였다.

소주제별로 짧은 글을 엮었기 때문에 막힘없이 읽히지만 관련 사진이 거의 없어 다소 지루한 면도 있다.

〈유진트라·1만6천5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질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건물을 추천합니다.

경매에 관한 모든 상금
062)236-3400

근린시설/원룸		대표이사 010-7570-7525		숙박시설/상가		유동상점		공장/토지		택성재개발 010-8328-8443	
소재지	대지/건물	길동가	최저가	비고							
순천동	대1191.21/801	14억	4억	60평당							
동광동	대1244.21/219	14억3천	6억4천	미주주차장							
충정동	대1468.21/258	3794천	13억3천	5층상당							
남동	대421.21/165	13억4천	6억	8층 시장							
충정동	대134.21/961	17억	12억	3층상당							
충정동	대208.21/1515	90억6천	26억6천	구획·백화점							
운정동	대271.21/810	48억7천	17억8천	대형상점							
충정동	대443.21/821	5억	1억8천	2층유동주							
금동	대776.21/331	31억6천	9억	7층빌딩							
봉동동	대219.21/338	67억2천	30억	6층 아파트							
오정동	대350.21/1097	8억	4억4천	4층빌딩							
구포동	대148.21/285	36억8천	16억8천	모텔형							
충정동	대467.21/1550	13억	6억3천	5층 빌딩							
양정동	대187.21/1855	40억8천	22억8천	2층유동							
봉동동	대360.21/1023	112억7천	26억	7층빌딩							

</